

△ 2001년도 표어 △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순복음 Life

제9호

발행일 2001년 9월 9일

발행인 : 한승권

위원장 : 김미진

편집처 : 문서발간위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중앙교회 ☎ 343-8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http://www.djfgcc.pe.kr ✉ hagape@netsgo.com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9월의 기도>

아주 툭툭 튀는 성도

집사 김형진

하얀 눈을 보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어
배고파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성도 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말씀”
이라는 전염병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는 많은 집집마다
배달하는 주님의
전도 택배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마치 철가방 속에서 맛있는
자장면을 꺼내듯
주님의 참 기쁨을 배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아이>

소변을 가릴 나이가 오래 전에 지났음에도 매일 밤마다 오줌을 싼다든지, 낮 시간에 너무 자주 오줌을 싸는 경우에는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이상일 수도 있으므로 보호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아동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정서적인 불안이나 심한 긴장 상태에 있을 경우 무의식적으로 오줌을 싸게 된다.

둘째, 방광이나 신장의 신체적인 이상으로 인해 소변 조절이 쉽지 않은 경우.

셋째, 소외감이나 욕구 불만,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 등의 심리적 요인인 경우.

넷째, 대소변 가리기의 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간혹, 꾸중이나 체벌로써 일관할 경우에 아동은 심리적으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어 야뇨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야뇨증은 수면 장애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방광 조절기능이 정상적으로 발육되지 않고 지연되기 때문이다.

신장이나 방광의 신체적 질환 때문에 야뇨증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지속될 경우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간혹, 아이가 실수로 야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아파 소변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긴장감이나 걱정,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수도 있다.

원인 중의 하나로 정서적인 불안을 들 수 있는데,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했다던가, 엄마가 동생을 낳으므로써 질투심, 불안, 퇴행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배변 훈련을 너무 강압적으로 시켰을 경우에, 그 동안 소변을 가렸던 아이가 갑작스런 야뇨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배설의 습관이나 훈련이 미숙하여 생길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 성장함으로써 쉽게 고쳐질 수 있는바, 부모가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대부분의 야뇨증 아동의 경우, 소변 조절을 쉽게 원활히 하도록 조건과 환경을 맞추어 주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변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맞추어 주려면, 먼저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아동이 오줌 싸는 시간은 주로 몇 시쯤인지? 횟수와 주기, 여건은 어떠했는지를 세밀히 체크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또, 잠자기 전에는 가급적 음료수나 수박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이지 않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기초 검사를 활용하여 잠자는 도중에 아이를 깨워 소변을 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여자아이일 경우엔 따뜻한 잠자리에 잠들도록 하는 것이 좋고, 아이의 욕구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애정 결핍 등의 심리적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는 가운데 “잘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비난이나 심한 꾸중, 체벌보다는 아동의 상태를 관심 있게 살피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는, 신체적 이상 때문에 소변 조절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전문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알뜰살뜰 “아나바다”

- 1....남여공용 허리벨트 / 색상은 검은빛 고동색, 값은 500원,
- 2....넥타이핀 & 장식 단추 세트 / 모양은 금색에 검은빛 장식이고, 가격은 800원
- 3....세탁비누 10개 / 일반 빨래비누이고, 5개 700원씩

물품제공 김형진 집사님
물품제공 김형진 집사님
물품제공 김미진 집사님

『하나님은 청년인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서론> 청년의 세월은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다 하여 유수 같다 하였으며, 또한 살 같다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되는 때입니다.

청년은 한 나라의 중추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있어서 이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청년의 세월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1. 자유스러움과 유혹의 세월입니다.

*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도발적이고, 대항적이고, 방종적일 수 있습니다.

* 신앙인으로서 최악의 도전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돈, 명예와 권세, 이성, 욕망, 쾌락 등 유혹의 올무는 청년의 삶을 앗아갈 것입니다.

*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때론 감정으로 어두워지며, 사람을 선택하게 될 때인데 자신의 감정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 청년의 시간을 5년~10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짧은 시간을 잘못 살면 긴 세월을 힘들게 살게 되고, 짧은 시간을 잘 살면 긴 세월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짧은 시간을 막 살다가 긴 세월을 고통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3.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세월입니다.

* 어느 때보다도 주를 위한 헌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인과관계에서 막히는 일이 최소적이라 하겠습니다. 소신껏 할 일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 하나님 사업을 위해 제일 이 투자할 수 있

습니다. 젊어서 주를 위한 헌신은 그 대가를 그 이후에 충분히 보상받게 됩니다.

청년의 시간이 지나면 마음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영적인 골격을 다질 수 있는 세월입니다.

* 인생의 가치관을 신앙으로 정리하고 다져야 합니다.

* 영혼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 제 3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5. 가장 많은 경험을 비축할 수 있는 세월입니다.

* 많은 것을 상대해야 합니다. 일, 사람, 기리고 사건 등.

* 배워야 합니다. 인생이든 신앙이든 선배들에게서 배워 자신의 것으로 축적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일구어야 합니다.

6.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세월입니다.

*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고 역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종종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교통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결론>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청년의 시간에 달렸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밀알청년회를 크게 부흥시키셔서 당진의 복음화를 이루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 못질은 비누를 칠해서 한다 >

집에서 못질을 할 때 못이 잘 들어가지 않아 애를 먹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못에 비누를 몇 번 문질렀다가 박으면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박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톱질을 하다가 톱이 나무에 끼어 뱅뱅할 때도 톱 양면에 비누를 칠해주면 신기할 정도로 톱이 잘 나간다.

< 시멘트 벽에다 못질하기 >

시멘트 벽에다 못질을 하려면 못이 잘 들어가지 않고 튕겨 나오거나 뺄어질 때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종이를 여러번 겹쳐 접은 다음 못을 박을 자리의 벽에다 대고 그 위에 못을 박으면 못도 구부러지지 않고 쉽게 잘 들어간다.

< 마늘 입냄새 제거 >

마늘 냄새의 원인은 아리나제라는 효소이다. 마늘을 먹은 뒤 우유를 마시면, 단백질이 이 효소와 결합해서 냄새를 없앤다고 말하지만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녹차의 잎을 입안에 넣고 잘게 씹고, 나중에 양치질을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녹차 안에는 후라보노라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마늘 냄새를 흡수해 주기 때문이다.

< 살갓에 묻은 페인트 지우는 법 >

손이나 얼굴에 콘드크림을 바르고 나서 페인트칠을 하면 페인트가 묻는다 하더라도 휴지로 닦아내면 금방 지워진다. 그런데 만일 콘드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페인트칠을 하다가 페인트가 묻었다면 페인트가 묻은 곳에 버터를 발라 잘 문지른 다음 타월로 닦아내고 씻어내면 말끔히 닦인다.

< 양념통에 쌀알을... >

조미료나 후추, 소금통은 습기가 차서 구멍이 자주 막힌다. 요리를 하다 양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번거로운 경우가 많다. 혹은 양념통을 세게 흔들다 양념이 한꺼번에 나와버려 요리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쌀알을 몇 개 통 안에 넣어 둔다. 쌀알이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구멍이 막히지 않아 잘 뿌려진다.

< 촛불 심지 밑 소금 넣으면 촛농 안 흐르고 밝아져 >

촛불을 켜 두면 촛농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해진다. 촛불 심지 밑에 고운 소금을 약간 뿌려 두면 촛농이 흘러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촛불도 한층 더 밝아진다. 또 양초를 물에 한참동안 담가 두었다가 사용해도 촛농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 바람 피운다 법적 용어 -

- 남녀간 성관계가 없더라도 깊이 마음이 끌린 상태라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 합당하다 -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2 단독 문종식 판사가 7월 18일 내린 ‘바람’의 정의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남편과 성관계를 갖지 않은 상대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李明(30.여)씨에게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바람’이 사전적 의미로 ‘이성에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를 의미하는 데다, 이혼 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사랑의 고백이 담긴 메일을 보내고 만난 사실 등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

♣ 이 달의 추천 신앙서적

책명 :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비결

저자 : 김석년

정가 : 5,000원



힘들어하는 소중한 당신을 위한 평안의 메시지!

◆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당신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방법은 오직 하나, 빛 되신 주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서 기필코 승리한다는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라. 당신보다도 더 당신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힘을 내십시오! 위기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대단히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힘들어 하는 소중한 당신을 위해 평안의 글들을 모아 세상에 펴냅니다. 이 책은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당신을 위한 성공의 동반자입니다

성경과학

●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

폭풍은 맹렬한 대개 교란 현상으로 굉장한 힘의 중심이다. 폭풍이 불 때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허리케인(서인도 제도 근처에서 부는 폭풍의 일종/역자 주) 하나가 불면 시속 100~200마일 속도의 공기 35억톤이 움직이면서 일초 동안에 내는 총 에너지는 6×10^{25} 에르그(ergs)에 달한다



시편 107편 23~3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폭풍 속에서도 나타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여호와와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데도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찌로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복음서의 기록과 같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일에서 더욱 더 잘 나타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39,41절).

개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위대한 인물이다 그의 이름 <מֹשֶׁה> 모세>는 '물의 아들'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건져내다'라는 어근 <מָצָא> 마샤>에서 유래하였다.

1. 시대 배경과 출생 과정

B. C. 1527년경,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때이다. 자국내의 이스라엘인들의 인구가 증가하자 두려움을 느낀 바로는 히브리 아들 중 태어나는 사내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린다. 이는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사람들이 장차 탄압과 억압을 거부하고 폭동을 일으킬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모세는 이 시기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레위 지파의 아르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이었다(참조, 출 6:20). 남자 아이는 출생 즉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시대였으므로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버렸다(참조, 출 1:22).

2. 바로 왕궁의 모세

강물에 버려진 아기 모세는 강가에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 구출된다. 이후, 강변에서 떠내려가는 동생을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의 중재로 모세의 모친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당시의 대국 애굽 왕궁에서 성장하는 모세는 애굽인들의 지혜와 궁궐 생활의 예의, 예술 등을 배운다(참조, 행 7:22). 모세는 애굽 왕실 생활을 40년 간 익혀 온 것이다. 그러나 그의 왕실 40년 생활은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참조, 출 6:20).

3. 출애굽의 지도자

애굽 생활 중 동족이 애굽 관리에게 당하는 불이익을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해 살인죄를 범한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고 만다. 그는 남방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하여 이드로의 집에 체류하던 중 호렙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참조, 출 3:1-4:17).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부여받은 모세는 협조자로 하나님이 내정한 형 아론의 도움을 입어 애굽으로 돌아온다. 모세는 도망자로 떠났던 애굽을 하나님의 사명자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돌아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선포하고 바로에게 열 가지 큰 재앙을 선포한다(참조, 출 7:20-12:30). 마침내 B. C. 1446년 아빕월(3-4월경)에 이스라엘 60만 장정과 가족, 재물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된다(참조, 출 12장).

4. 광야의 지도자 모세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광야 길에서 이후 40년 간 모세의 지도를 받게 된다(B. C. 1446-1406까지), 홍해를 건너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 산에 당도하였는데(참조, 출 17:2-16), 여기서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과 종교 지침이 되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내려온다(참조, 출 31:18). 출애굽은 하였지만 애굽 노예 생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백성들의 반하나님적 작태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는 정탐꾼을 편성하여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하였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B. C. 1406년, 그의 나이 120세에 모압 땅에서 죽는다(참조, 신 34:6).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무덤을 아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는 가끔씩 떨어지는 나뭇잎이 있는 걸 보니
과연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는가 부다.
엄마가 빈취를 낳아 안고 신기하게 바라본 것도 어제의 일처럼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벌써 의젓하게 자랐구나..
의젓해진 모습을 바라보며 엄마는 가끔씩 빈취가 꼭 엄마의 친구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빈취야.....
엄마는 빈취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오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참 많다.
많은 날을 아파하며 힘들게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엄마가 참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지금도 수술하기 얼마 전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며 화장실을 오가던 너의 모습이 선하다.
어른인 엄마도 뱃속에 것을 토해내기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어린 네가 밤새.....
아니 그 슬한 날들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면 엄마는 지금도 눈물이 나고 엄마 자신에게 막 화가 나고 그런단다.
그렇지만 엄마 원망 조금도 안하고 이쁘게 자라주는 너를 바라보며 엄마는 너무 흐뭇해.
때때로 엄마의 욕심으로 무리한 것을 요구해도 못한다고 짜증내지 않고 묵묵히
따라주는 모습.....그리고 동생 희영이를 마치 엄마인양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과연 엄마 아빠의 소중하고 귀한 딸이라는 생각을 한다.
빈취야....
엄마가 너를 너무 많이 꾸중하지?
미안하다. 엄마가 네게 거는 기대가 크고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탓이란다.
엄마도 빈취를 꾸중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아니?
다시는 사랑하는 엄마의 딸을 혼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되질 않는구나..
어찌된 일인지 큰소리부터 나가고 말야.
이제는 빈취야...
엄마가 네게 말했듯이 우리 친구 같은 모녀가 되어보자.....
엄마도 이제는 그전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너를 바라볼게...
그러니까 우리 빈취도 주어진 환경에 항상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 출래?
그리고 한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책을 정말 좋아하더구나...
그런 너를 보며 흐뭇하기도 하지만 엄마는 또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네 눈이 좋지 않기 때문이야. 책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파고들지는 말아라.
지금보다 시력이 더 나빠지면 곤란하니까 말야. 알았지?
빈취야....
지금처럼만 자라주렴.... 많이 먹고 건강하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름답게 살거라..
아빠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고....

세상에서 빈취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웅욱이예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구요.
 우리는 별집에 살아요.
 별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희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웅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백스만해서 4식구가 다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2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두 번 정도
 취로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싸 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 단지들아! 왜 태어났니...같이 죽어버리자" 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구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웅욱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켄케란 두 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구요.
 몸이 아파서 누워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흥,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원에 월세 3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 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테니 엄마도 슬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 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 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 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물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대접할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

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다섯 권을 놓고 돌아가셨어

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잠깐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 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수가...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 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애 웬웬아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웬웬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

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얹게 하시고 나신 것이 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 만해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구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웬웬아,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 드린다

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 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웬웬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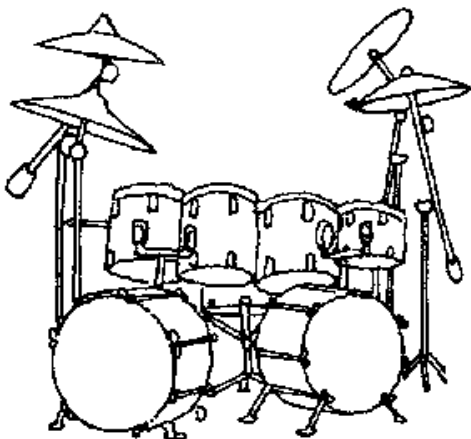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밀알 청년회에 박승철 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에... 대학에 들어 온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방학이... 참 세월 빠르네요...



저는 고등학교를 참 힘들게 다녔습니다. 입학하여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맘에 맞는 친구가 없어서 많이 외롭게 생활하였지요. 눈에 보이는 선배나 친구들의 모습은 다 험상궂게 보여서 말도 제대로 걸지 못하고 매일 긴장하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드림을 친다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뿐 믿음이 많아 보이지 않았고 또 담배도 피우더라구요. 그 친구를 보면서 또한 교훈을 삼으며 나를 절제시키며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내 몸을 깨끗이 잘 지켜 나가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요. 친구들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조심하는 저를 보고 놀리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저에게 친구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 주었는데 그게 바로 “아멘” 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식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놀리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별명이 참으로 기분 좋게 들리더라고요.

이런 제게 고 3은 왔고 대학이라는 관문은 너무 높아만 보였습니다. 내 실력을 스스로 잘 아는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영길 집사님의 권면과 가족들의 걱정으로 대학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날부터 따라주지 않는 실력과 머리로 남들이 한다는 수능시험 공부를 시작했지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요. 그래서 엄한 엄마에게 짜증 참 많이 부렸네요... 그 짜증 다 받아주며 묵묵히 지켜주신 엄마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군요. 그러다가 시험을 보았고 결과는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엄마의 금식기도....그리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저는 서울에 있는 동양공업전문대에 합격 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지요. 저는 이 소식을 목사님께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그때 “할렐루야..축하한다” 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히 살아납니다.



늘 제 삶 속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며 세상에서 이끌어 내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전보다 더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생활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에스미션”이라는 찬양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려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삶에 형통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 사오정 주변 -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들어갔더니 교실이 난장판이었다.
화가 난 선생님이 소리쳤다. "주변! 앞으로 나와! 청소가 장난이야?"
그러자 사오정이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이게 뭐야! 제대로 못해? 주변이라는 게 말이야!" 하며 뺨을 후려했다.
사오정은 아무 말 없이 답임을 노력하며, 주먹을 쥐었다.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당돌해!" 하며 계속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때 교실 뒤에서 두 학생이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희들이 주변입니다." "뭐? 그러면 이 자식은 뭐야?"
그러자, 사오정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9번이다! 불러 놓고, 왜 때려!"

- 펭귄 시리즈 -

펭귄이 길을 가다 넘어졌다 하는 말 "일어나야지"
펭귄이 길을 가다 또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하는 말 "아까 일어나지 말걸"
펭귄이 길을 가다 그 자리에서 또 넘어졌다 하는 말 "이제 안 일어나야지"
펭귄이 안 일어나다가 얼어죽었다 하는 말 "아까 일어날 걸"

- 직업별 최고 거짓말 -

웃가게 주인 : 어머! 언니한테 딱이네. 완전 맞춤복이야.
수능 출제위원 : 이번 수능시험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만 출제했습니다.
남대문 리어카 아저씨 : 이거 밀지고 파는 거여여.
정치가 : 단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니다.
간호사 :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연예인 : 우린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에요!
웨딩사진사 : 내가 본 신부 중에 젤 이쁜데여.
비행기 조종사 :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S기사 : 이런 고장은 처음 봅니다.
수석합격생 : 잠은 충분히 자고,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습니다.
미스코리아 : 그럼요!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하죠.
중국집 주인 : 아이구, 음식 갖고 금방 출발했습니다.
신인배우 :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사장 : 우리 회사는 바로 사원 여러분의 것입니다.

- 신의 능력 -

가게를 개업한 불암이는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만약 오늘 안으로 200만원을 벌 수 있다면 당신에게 100만원을 바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동안 번 돈을 세어보니 딱 100만원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서 뭇을 챙기다니..."

이 달의 새신자 소개

한동익 집사님

마른 채구에 검게 그을리신 집사님을 처음 뵈는 때 왠지 기뻐합니다. 주님을 떠나 계시다가 다시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신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사랑의 뜨거움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시길 바라구요 먼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님이 되어 주세요.

잃었던 양을 다시 찾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회개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며 집사님 가정이 늘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박엘리자 성도님

외모는 분명 한국 사람이 맞는데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박엘리자 성도님은 우즈베키스탄 교포 3세랍니다. 한국이 좋아 자녀와 행정리에 와서 사시구요. 본국에서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그는 현재 사장님의 도움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많아 아직은 적응하기 어렵겠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같이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가세요...저희가 늘 기도해드릴게요.



옥행시

==> 성경통독대회 <==

집사 김미진

성...성전으로 모이세요
경...경건함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통...통통하게 살이 올라요..내 영혼이
독...독하던 마음도 온화해지고 남을 위해
대...대신 눈물로 흘려 줄 수 있어요
회...회의에 젖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 성경통독대회(후회) <==

성...성격이니 내버려 두라 했지요
경...경건하고는 담 쌓은지 오래라고 말했었어요
통...통곡하며 회개할 일 만들지 말라 했을 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냅구했지요
독...독침과도 같은 내 말 한 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대...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회...회복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지금에 와서야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어리석게도

사탄의 새로운 옷, 뉴-에이지운동

(NEW DRESS OF SATAN, NEW-AGE MOVEMENT)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2:2)

6. 뉴에이지운동과 카톨릭교회

카톨릭은 1963년에 '제2 바티칸공회'를 세워 세계종교통합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로마 카톨릭교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마리아의 신성화(神聖化) -그녀의 무원죄와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하늘의 여신이라는 우상숭배(렘44:17-19) - 와 교황의 무오류(無誤謬) 그리고 행위에 의한 구원 등등은 결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신학자들은 로마카톨릭을 계시록 17, 18장의 바벨론 종교와 혼합된 영적인 음녀라고 보고, "과연 카톨릭에 구원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까지 밝히기도 했다(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 할렐루야서원참조)

그러나 1987년 세계교회협의회(W.C.C.)산하 미국교회협의회(N.C.C.)는 미국카톨릭선교회와 함께 공동선교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1994년 3월 29일 미국 뉴욕타임즈지에 "복음주의와 카톨릭이 함께 : 세 번째 천년을 향한 크리스찬 선교(Evangelical and Catholics Together : The Christian Mission in The 3rd Millennium)"라는 광고를 통하여,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여 피차간에는 전도하지 않을 것과 선교에 함께 한다는 소위 '바티칸 합의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 40명이 서명하였는데, 세계대학생선교회 총재(C.C.C.) 벨브라이트 목사, T.B.N.의 폴 크라뿔목사, L.A.의 잭 하이워드목사 등이 포함되었다.

큰일이다. 하늘의 여신(?) 마리아와 손잡은 교계지도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다행히(?) 벨리그래함목사는 이 서명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종교통합의 움직임은 오순절교회의 온사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교의 온사주의자들의 연합(?)에서도 드러났다. 오순절의 성경운동(방언, 예언, 환상, 병고침)이 로마 카톨릭에서도 일어났는데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역사가 아니냐는 태도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성경온사가 마리아의 온총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믿고, 마리아를 더욱 숭배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 하는 '진리의 영'이다(요15:26). 성경의 방언인지? 귀신의 방언인지? 말씀을 믿을 것인가? 석고상에 흐르는 마리아의 피눈물(성스러운 호소?)을 믿을 것인가? 영분별을 해야 한다(마7:15-23; 요일4:1).

영분별의 기준은 온사(?)도, 기적도, 교계와 선교단체의 지도자도 아니다. 오직 말씀(성경)뿐이다! 예수님도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임을 직접 예언하셨다(마24:24).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친 마틴 루터의 고독한 피맺힘의 절규를 듣고 교회여! 오직 말씀(성경)으로 돌아가자!

홍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며,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도서로서 2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전체가 1965년 4월 7일 천연기념물 제 170호로 지정된 홍도는 온통 홍갈색으로 섬이 빨갛게 보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목포에서 72 마일, 대흑산도에서 14 마일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경25°10' ~ 34°44') 홍갈색의 규암으로 된 홍도는 남쪽의 양상봉(해발 236km)과 북쪽의 깃대봉(해발 367.4km)으로 이뤄져서 대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의 길이가 6km밖에 안되지만 해안선 일대의 산재한 홍갈색의 크고작은 무인도와 깎아지른듯한 절벽들은 오랜 세월의 풍파로 형언할 수 없는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벼랑등에는 아직도 유명한 풍란과 분재같은 노송들이 자태를 과시하고 있다.

양상봉과 깃대봉에는 울창한 아름드리 동백림과 · 후박나무 · 식나무 · 누운향나무 등 희귀식물 540여종과 231종의 동물 및 곤충들이 서식한다.

절은 코발트색의 몇 길 물속에서 노니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흰히 볼 수 있으며 독립문바위 주변과 탑여 주변은 유명한 낚시터로 대형 돌돔을 비롯, 우럭 · 광어 · 농어 · 감성돔 · 참돔 · 장어(아나고) · 열기 등이 태공들을 놀라게 한다.

홍도에 가려면 항구도시 목포항에서 초고속 쾌속선을 타고 뱃길로 가야하는데 홍도 선착장까지는 약 2시간 20분에서 30분정도가 소요되며 신안군 비금, 도초, 흑산등 섬 주위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무인도와 깎아지른듯한 절벽들의 절경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홍도에 닿게 된다.

홍도는 외딴섬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바다와 바위가 만나 빚어낸 절묘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홍도의 해안 절벽은 그만큼 절경이면서 바다로 사람을 흡입하는 흡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홍도 관광의 진수는 33가지 비경을 들수 있는데 이 모두를 감상하려면 유람선을 타고 섬을 한바퀴 돌아야 한다.

크고 작은 섬들을 도는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이며 해상코스는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남문바위를 비롯하여 촛대바위, 칼바위,남매바위, 도립문바위, 석화굴, 부부탑, 원수이바위, 주전자바위, 거북이바위 등 끝도 없이 펼쳐지는 기암괴석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한국 해변미의 정수와 섬문화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꽃게탕>

자료제공 : 이재욱 집사

성도의 맛사랑

안녕하세요... 이 재욱 집사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꽃게탕을 한번 해서 드셔 보세요. 특히 입맛을 잃었을 때 해서 드시면 더욱 좋을 거예요..

주재료 : 고추장,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꽃게 2마리, 무 1/2개, 풋고추 3개, 된장 2큰술,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1/2큰술, 파 2뿌리, 마늘 6쪽, 생강 1쪽, 물 4컵, 소금 약간



① 꽃게 손질하기 : 꽃게는 물이 오른 싱싱한 것으로 준비하여 솔로 깨끗이 문질러 씻은 다음 배 쪽의 삼각형 부분을 떼어 낸 뒤 등 쪽의 게딱지를 벗기고 몸통을 2등분한다. 굵은 발을 떼고 가는 발은 몸통과 함께 3,4토막으로 적당하게 나눈 다음 발의 끝을 칼로 잘라낸다.

② 무는 길이로 4등분하여 0.5cm 두께로 썰고 깻잎은 깨끗이 씻은 후 3,4등분한다. 풋고추는 어슷썰기 하여 씨를 모두 뺀다.

③ 냄비에 물을 4컵 정도 붓고 끓이다가 된장, 고추장을 골고루 풀어 넣고 끓인다.



찬양으로 받은 은혜

최순환 권사

남부럽지 않은 부유층의 딸로 태어난 저는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보면 예수쟁이라 하며 비웃어 주며 내 소신껏 살아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오신 예수님은 찬양으로 제 마음을 잡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라는 이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은혜 받은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지나온 과거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 찬양을 들으며 그때를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를 떠난 우리의 심령은 살 수 없음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 제 8호 퍼즐 정답

십	브	게		에	베	소	서
보		미		벤			원
라	마			에		요	제
	게	셋		셀		안	
강	도				하	나	멜
	냐			박			리
			밧	수	아		데
오	네	시	모		간	절	

● 전자상거래의 개념 ●

전자상거래란, 전자공간(Cyberspace) 상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로써 넓은 의미의 기업이나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상에서 행하는 광고, 발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모든 경제 활동을 뜻한다.

이는 CALS(Commerce At LightSpeed),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CB(Cyber Business)의 세 가지 개념이 포괄적으로 정의된 것이다. 여기서 ECIP의 EC란 EDI와 CALS분야를 제외한 CB에 근접한 개념이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 전자 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오스틴 대학의 윈스톤 교수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의 구매와 정의될 수 있다. 전자 상거래는 쇼핑, 금융 등 인터넷 가상공간(Cyberspace)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어 실현되기 때문에 실물 위주의 경제 체제에 혁명적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쇼핑몰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상점이라는 의미이다. 즉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가게의 상품을 보는 개념을 인터넷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 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검색부터 배달까지 다음과 같은 약 8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우선 컴퓨터로 컴퓨터통신망이나 인터넷의 가상상점에 들어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고른다.

필요한 상품을 고른 소비자가 거래 신청서를 통해 가상상점 운영자에게 팔 것을 요청하면, 운영자는 인증국에 거래 요청자가 본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가려줄 것으로 요구한다. 인증국은 가상상점 운영자와 소비자의 정당성과 신용을 법적으로 보증해주는 곳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 인증국으로부터 소비자에 대한 신용 인증이 떨어진다. 상점 운영자는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승낙한 뒤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물품 대금 지불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가상은행에서 발생하는 전자화폐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불을 끝낸다.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달된다.

● 전자상거래의 도래 ●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적인 형태의 상거래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듯 하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보수적인 대기업들도 인터넷상의 전자 상거래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이 분야가 시장 형성기임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가능한 전자적인 상거래의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광고이다. 광고는 사용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자체도 시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작년 인터넷상에서의 광고수입은 넷스케이프(Netscape), 야후(Yahoo) 등과 같은 사이트가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본격적인 전자상거래의 형태는 네트워크 쇼핑센터이다.

ISN(<http://www.internet.net/>) 이나 Imall (<http://www.imall.com/>) 등이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센터들이다. 야후를 들어가 쇼핑센터를 리스팅하면 수백개가 된다. 네트워크 쇼핑은 쇼핑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배달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약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세계적인 소규모 배달을 위한 물류시스템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 가운데 하나이다.

인터넷상의 상거래로서 무엇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온라인출판, 데이터베이스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통이다. 온라인 출판과 데이터베이스서비스는 그 동안 가입자중심의 폐쇄적 서비스였고 특히 온라인 출판이라는 영역은 거의 시장이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종이출판정도의 질을 보장하는 멀티미디어 통신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WWW의 출현으로 온라인출판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온라인출판과 데이터베이스서비스는 주로 소액지불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소액전자지불(micropayment) 메커니즘이 해결되면 폭발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유통은 그 특성상 네트워크상에서 매우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만 해결된다면 네트워크상의 소프트웨어 유통은 매우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도 데모프로그램이나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의 유통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업적이라는 용어에 꼭 빠지지 않는 감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락 분야이다. 오락분야는 게임 음악 영화 도박 등으로서 네트워크상에서 구현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장벽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인터넷에서 자료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좀더 넓어진다면 이 분야도 무시 못하는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기타 여러 가지 실세계에 존재하는 상업적인 활동이 이제는 네트워크 상에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전자상거래이다.

홈뱅킹(Home Banking)

- 인터넷이나 PC 통신으로 가정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PC 통신으로 은행의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원하는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홈뱅킹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예금 잔액·입출금 내역 조회, 계좌간의 자금 이체, 타행으로의 송금 등 다양하다.

이 제도가 가능한 것은 각 금융기관에서 각종 금융정보를 수록해 두고 금융정보 통신망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정보망은 1989년부터 고객들의 전화 요구로 고객의 은행 거래내역은 물론 주요 국가의 통화 환율이나 금융 상품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음성정보 서비스로부터 시작하였다.

인터넷의 확대로 은행들이 앞다투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실시하여 온라인상에서 대출까지 가능해질 정도로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한국의 사이버 증권거래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인터넷상의 주식거래만을 취급하는 증권회사가 생길 정도이다.

초고속통신망의 보급으로 홈뱅킹 이용방법이 더 간단해졌다. 전용선과 연결된 인터넷 TV를 통해서 리모컨과 무선키보드 조작으로 해외송금, 신용카드 업무, 공과금 납부 등의 은행업무는 물론 증권거래와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홈뱅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망을 통한 금융거래에 관련되는 보안문제이다. 또 거래절차를 마치는 시간이 은행창구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아직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부각되고 있다.

어리석은 싸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선명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창 1:25)



콜레라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균에 의한 급성 세균성 장내감염증으로 구토와 설사가 주 증상이다. 위생시설 및 환경위생이 나쁜 곳(특히 오염된 상수도원)에서 발생되며, 오염된 식수, 음식물, 어패류를 먹은 후 감염된다. 수분 및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테트라사이클린 등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고, 물이나 음식을 끓여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쥐통, 쥐병, 호열자, 진질 등으로 불리웠으며 최근에는 1980년, 1991년, 1995년에 유행 발생했다. 1917년 이래로 일곱차례의 세계적인 유행이 있었으며, 1960년대 초반과 1970년대에 걸쳐 아프리카, 서유럽, 필리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생했다.

콜레라균

Vibrio cholerae

1.0-5.0 × 0.3-0.6 μ m의 그람음성간균으로, 한 개의 편모가 있어서 운동성이 활발하며 아포나 협막은 없으며, 콤마형이다. 현재 분리된 콜레라균의 생물학적형(biotype)에는 인도지방 등에서 발생 유래한 진성콜레라균과 이의 생물학적 변이형인 E1 Tor형이 있다. 공통으로 편모(H)항원을 가지며, 군체(O)항원에 의하여 여섯가지 혈청군으로 분류되며 이 중 O-1형이 아시아형 콜레라 원인균이다. O-IV cholerae는 항원인자 A, B, C에 따라 Ogawa형, Inaba형 그리고 Hikoshima형 세가지 혈청형으로 분류된다. Ph 6.0이하이거나 56 C에서 15분 가온시에 균이 죽는다. 끓는 물에서는 순간적으로 죽으며, 실온에서는 약2주, 물에서는 수일간, 그리고 하천과 해수에서는 오래산다.



감염 및 전파경로

콜레라균은 주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과일, 채소 특히 연안에서 잡히는 어패류를 통해 경구감염되며, 장레식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제공되는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집단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속에 배설된 콜레라균이 경구적으로 감염된다. 비행기 여행객이나 선박, 외항선원들을 통한 유입감염과 토착보균자에 의한 감염이 있다. 6시간에서 길게는 5일까지의 잠복기를 거치며, 대개 24시간 내외에 발생한다. 환자의 균 배출기간은 약 2-3일 정도로 짧고, 감염에는 10^8 - 10^{11} 에 이르는 많은 수의 균이 필요하므로 전파에 큰 구실을 하지 못한다.

증상

전형적인 증세는 잠복기가 지난 후 과다한 물설사가 갑자기 시작되며 복통은 없다. 심한 경우 쌀뜨물 같은 설사와 함께 구토, 발열, 복부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극심한 설사로 인해 심한 탈수현상을 초래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무증상 감염자나 만성보균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E1 tor형은 무증상 또는 경미한 감염의 빈도가 높다.

진단 및 치료

설사변, 구토물, 직장에서 채변한 검체에서 콜레라균을 분리, 배양하여 확진하며, 면역혈청학적 시험, 박테리오파아지형별 등이 진단에 이용된다. 오염지역으로의 여행경력과 임상증상으로 추정진단하기도 한다. 콜레라 환자는 반드시 격리 치료해야 하며, 탈수정도를 파악하여 손실된 수분 및 전해질을 신속히보충해 주면 된다. 9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박트림(TMP-SMX), 임산부에게는 암피실린(ampicillin), 9세 이상이면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을 사용할 수 있다.

관리 및 예방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의 섭취를 금하는 것이다.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음식물을 준비하거나 취급할 때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먹어야 한다.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특히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 백신에 의한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예방접종은 면역효과가 불충분하고 비용효과가 낮기 때문에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궁금함은 어떻게?

Q 콜레라환자와 악수를 해도 콜레라에 걸릴 수 있나요?

A 환자의 구토물이나 변속에 배설된 콜레라균이 경구적으로 감염되는데, 사람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콜레라환자와의 가벼운 접촉으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Q 콜레라균은 왜 병을 일으키나요?

A 독소를 생성하기 때문인데, 독소를 생성하는 경우에도 운동성이 없는 변이형균은 질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Q 콜레라는 여름에만 걸리나요?

A 콜레라균은 -2 C - 10 C에서 쉽게 죽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동면할 수 없으므로, 겨울에 발생하는 콜레라는 국외에서 유입하여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Q 콜레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A 백신(Vaccine)에 의한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면역효과가 불충분하고 비용효과가 낮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Q 콜레라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가 사용한 물건이나 대변과 토물은 carbon acid 등의 소독제로 소독해야 하고, 오염된 물건을 취급한 경우에는 매번 손을 씻어야 합니다. 도마 등 조리기구는 매일 소독하고 잘 말려서 사용합니다. 콜레라 유행지역에 있는 사람과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구용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을 복용하여 감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제약사가 강간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임신, 그리고 부부간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대처하기 위한 “사후피임약” 시판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종교단체의 반대로 허가가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 약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일반화 되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후 피임약이란 성교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여 수정란의 이동과 착상을 막아 임신을 피하는 약이다. 이 약의 성분은 프로게스테론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며 임신을 촉진하고 돕지만 그 일종인 레보노르게스트렐을 대량으로 복용하면 반대로 임신을 방해한다. 즉 높은 용량의 레보노르게스트렐을 복용하면 배란 전에는 배란을 지연시키고 난관 내에서는 정자와 난자의 이동을 저해시켜 수정을 막는다.

또한 정자의 이동도 방해한다. 만약 수정된 이후라면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다. 이 같은 임신억제 효과는 빨리 복용할수록 커진다. 이 약을 섭취하므로 메스꺼움이나 복통, 피로감 불규칙한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피임약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의약품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즉 미국, 프랑스, 영국 등 39개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시판하는 중이다. 이 약이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안전성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이나 무분별한 여성들의 임신은 미혼모와 사생아의 출산을 많이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이 이 사후 피임약을 사용할 경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에 너무 많이 의존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라의 성 풍속이 더 문란해 질 수 있고 콘돔 사용의 감소로 성병이 증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간 또는 부주의한 성 관계 등으로 이 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정부의 규제아래 시판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주장되고 있다.

사소한 죄

잘 닦아 놓은 칼에 물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즉시 닦아 버리면 거의 자국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몇날 며칠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생각 속에는 있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금지된 일에 탐닉하면, 점차 그것은 당신의 도덕적인 존재 안으로 침입해 들어올 것이고, 또 영적인 힘으로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죄에는 사소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어떤 죄악도 당신 속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하라.

트랜스 젠더(성전환)

반대의 성으로 사는 '아웃사이더'

사회적 편견 떨치고 세상 밖으로 화려한 외출

한 몸 안에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성(性)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남성의 신체를 갖고 태어났지만 오히려 여성적 기질이 훨씬 강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본래의 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성으로 새 삶을 찾아 나서고 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또는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고 하는 성전환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둠 속에서 아웃사이더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세계를 살펴본다.

“정신과 마음이 원하는 성으로 살겠다”

성(性)전환자인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출연을 금기시했던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트랜스젠더들을 등장시키고, 스포츠신문 등 도하 신문들도 이들에 대한 지면을 할애한다.

미모의 트랜스젠더 스타 한명이 그간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성(性)’으로 숨죽이고 살아가던 성전환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유교적·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무지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동성애자 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변태 성욕자’ 정도로 치부해 버린 것이 사실이다. 동성애자중에서도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애써 외면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단순히 이들을 기분 나쁜, 징그러운 존재라는 편견을 가졌을 뿐 ‘그늘진 소수 집단’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최근 주목 받는 하리수라는 미모의 트랜스젠더가 마스크의 각광을 받지만 그 역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불행한 이방인 중 한 사람이었다.

트랜스젠더인 최모(28)씨.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10년 전 일본에서 남성을 제거하고 여성이 되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누가 봐도 완벽한 여자로의 변신에는 성공했지만, 사회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집도 나왔다. 취직을 하려고 이곳 저곳을 돌아 다녔으나 주민등록증의 성별과 다른 외모 때문에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결국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 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여자 접대부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해 나갔다. 보통 여자처럼 살고 싶었지만 이 사회에서 그것은 한낱 꿈이었다. 그는 아직 그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을 등지느냐, 아니면 음지에서 자신의 성을 갈아먹으면 사느냐입니다”라는 그의 말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선천적 기질, 의학적인 결정이 전제돼야

흔히 ‘트랜스젠더’ 하면 일반인들은 흔히 남자 동성애자인 호모나 게이, 여자 동성애자인 레즈비언 등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이들과는 판이하다. 호모나 레즈비언은 본래 자신의 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 동성에 성적 관심과 매력을 갖는 것이다.

반면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자신의 육체적 성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천적 기형’ 또는 ‘성적 돌연변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타고난 육체적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대의 성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호모나 레즈비언과 달리 자신의 육체적 성을 기꺼이 버리고 새로운 성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고통과 불편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취한다.

다시 말해 트랜스젠더는 후천적인 성향이나 취향 같은 일시적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선천적인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의 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는 반드시 의학적인 결정이 전제가 된다.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신과의사로부터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라는 판정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는 트랜스젠더는 보통 2년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주사와 항남성 호르몬제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런 호르몬 주사를 1년 정도 맞으면 남성의 발기나 성욕이 사라진다. 6개월 이상 여성 호르몬을 투

여 받으면 정자 생성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추후 호르몬 주입을 중단 하더라도 임신 능력이 상실되는 등 완전한 남성으로 복원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당수 전문의들은 호르몬 치료를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트랜스젠더냐, 레즈비언 같은 단순한 동성애자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내 2,000명 정도추산, 성전환 수술은 10% 안돼

트랜스젠더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우선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적 기질을 갖는 MTF(Male to Female)형과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살고자 하는 FTM(Female to Male)형으로 구분된다. 외국 통계에 따르면 MTF는 3만명당 한명, FTM는 10만명당 한명 꼴로 발생한다. 아직 통계 자료가 없어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국내에는 약 1,500~2,000명 정도의 트랜스젠더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5~8% 정도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

프리마 크리닉의 장송선(비뇨기과 전문의)원장은 “호르몬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보면 대학생, 의사, 디자이너, 학원 강사, 재수생, 컴퓨터 전문가 등 유흥업소 종사자 보다 일반직 종사자들이 월등히 많은 편”이라며 “우리 사회는 단지 이들이 정상적인 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터부시하고 배척하는데 그것은 소수의 성에 대한 다수의 횡포다. 그들의 인권도 평범한 다른 사람처럼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한 마디

다원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임을 실감나게 해 주는 현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전까지는 획일적이며 수직적인 조직사회에서 살아 왔으나 이제부터는 그런 규례가 새로운 각도로 탈바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사회적 · 정서적 · 규범적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 지지를 받든지 규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법은 필요성에 의해 정해졌고, 도덕과 윤리는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시대는 그 색깔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대의 번영과 멸망은 그 시대의 문화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종교이다.

종교는 어떤 면에서 마지막 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때로는 사람의 양심이 무너져 짐승의 길을 걷는 경우에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인 것이다.

즉, 양심 · 법 · 도덕 · 윤리 등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인간화를 막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종교의 영역에 맡길 수밖에 없다. 물론 종교도 때로는 부패하고 타락된다. 그러나 종교의 근본적 가르침과 삶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잣대로 사용해 왔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트랜스 젠더’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익을 따지며 자신들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며 반박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최악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종교인이며 목사로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자 한다¹. 다만 염려스럽고 안타까움은 너무 간단히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인 성(性)을 비애적으로만 여기며 물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이며 그래서 안된다는 것이다.

주) 1.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 현상이 정신세계에 반하여 기형적이라 한다. 의학적으로 볼 때 다른 신체가 나타내주고 있는 성과 다른 이성적 신체를 지니고 출생했다는 차원에서

29. 마사다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이며, 사해의 서쪽 약 4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위의 유대 광야의 산들과는 고립된, 높이 434m의 이 천혜의 절벽 요새는 정상에 길이 620m, 가장 넓은 곳의 폭이 250m, 평균 120m인 평지를 이루고 있다. 서기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Josephus)는 그의 저서 **"유대 전쟁사" (The Jewish War)**를 통하여 마사다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서기 66년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갈릴리 지방의 유대군 지휘관이었으나 나중에 로마군에 넘어간 사람이다.

그는 비록 조국에 등을 돌렸지만, 어느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마사다 전투를 기록으로 남겼다. 요세프스는 마음을 움직이는 글로,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이 로마군과 맞서 싸우다 죽어간 서기 73년의 어느 봄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마사다 최후의 날

이 바위산을 처음 요새로 만든 이는 대제사장 요나단 (Jonathan : 주전 160~143) 이었다. 그 후 유대왕 헤롯 (Herodes) 이 주전 35년에 여기에 왕궁을 짓고 성벽을 둘러 난공 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그 무렵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집정관 안토니우스에게 유대 왕국을 그녀에게 달라고 졸라대고 있었다. 로마에 기대고 있던 헤롯은 유대인의 반란과 로마의 배신을 두려워하여 마사다를 유사시의 피난처로 만들었던 것이다.

헤롯이 죽은 뒤, 서기 66년 유대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로마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 성전의 파괴로 끝을 맺게 되자 이에 굴복하지 않은 960여명의 **"열심당원"** 이라 불리는 극우파 민족주의자들은 이미 66년에 당시 소수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마사다를 점령하며 저장된 물과 식량, 무기를 이용하여 로마에 대항하였다.

마사다에는 엄청난 옥수수와 콩, 대추야자가 쌓여 있었고, 포도주와 기름도 넉넉했다. 과일들은 신선했고 잘 익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메마른 날씨와 먼지가 섞이지 않은 공기 덕분에 100년이 넘도록 썩지 않고 잘 갈무리되어 있었다. 헤롯왕이 만든 물탱크에는 물이 가득했으며, 무기도 1만명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 마련되어 있었다.

사막과 다름없는 들판을 건너오기에 지친 로마군은, 가파른 벼랑 위에서 내려다 보며 활을 쏘아대는 반란군을 이길 수가 없었다. 게다가 성안에는 식량과 무기가 얼마든지 있었으므로, 마사다야말로 열심당원들이 로마군과 맞서 싸우기에는 더할 나위없는 요새였다.

마사다에 모여든 유대인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 960여명. 로마제국으로 볼 때는 한줌에 지나지 않는 수였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이들을 쳐부수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사다는 끊임없이 로마군 진지를 습격하는 게릴라 기지로 쓰였으며, 그것은 꺼져가는 반란의 불길을 또다시 타오르게 할 염려가 있었다. 또한 로마의 총사령관 티투스(Titus)는 장차 아라비아 광야 지역으로의 진출을 예상한 광야 전투의 훈련을 목적으로, 서기 72년 실바(Silva) 장군으로 하여금 10군단을 이끌고 이곳에 대한 대규모의 포위 작전을 실시하게 하였다.

그는 9천에 가까운 군대와 함께 6천이 넘는 유대인 전쟁 포로들을 일꾼으로 이끌고 왔다. 실바는 마사다를 빙 둘러 벽을 쌓고 곳곳에 망루를 세웠다. 그러나 반란군은 무기와 식량이 넉넉했으므로 아무리 오래 포위하고 있어 보았자 지치는 쪽은 로마군 이었다. 로마군은 먼데서 물을 길어 왔고, 보급품도 유대광야 너머에서 날라야 했다.

실바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공격하기로 했다. 마사다 서쪽 벼랑에는 희고 넓은 바위가 툭 튀어 나와 있었다. 실바는 '흰 곳'이라고 불리운 그 바위까지 흙과 돌을 다져 비탈을 쌓도록 했다. 비탈 길이는 200m 로 꼭대기가 마사다 성벽보다 겨우 20m 아래였다.

로마군은 비탈 위로 공성탑을 만들어 올렸다. 철판을 두른 이 탑에서 로마군들이 활을 쏘며 엄호하는 사이 다른 병사들이 공성쇠(Battering Ram)를 끌어 올렸다. 세계를 정복한 로마군의 공성쇠는 무서웠다. 공성쇠에서 날



아간 20kg이 넘는 돌들은 끝내 마사다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유대인들은 서둘러 무너진 성벽에 또다른 벽을 쌓았다. 그들은 나무 대들보들을 두겹으로 구불구불 쌓고 그 안에 흙을 넣어 돌이 날아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실바는 '미사일 공격'으로 바꿨다. 불화살이 유성처럼 날아가 박히자 나무벽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실바는 기쁨에 넘쳐 그의 진지로 물러났다. 그는 다음날 아침 구름다리를 놓고 성안으로 쳐들어가기로 했다. 로마 병정들은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밤새 물샷틈없이 지켰다. 그날 밤 유대인들의 지도자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Eliezer ben Yair)**는 남자들을 모두 한 군데 불러 모았다. 날이 밝으면 마사다는 무너질 것이다. 그는 비장하게 마지막 연설을 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이다. 어둠이 몰려가면 우리는 저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자유로우므로 부끄럽지 않게 죽을 기회가 있다. 그것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치욕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고,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다. 자! 노예가 되기보다 자유란 이름의 수의(壽衣)를 입자."

벤 야이르의 말이 다 끝나자 어떤 이들은 기꺼이 그 말을 따르려 했지만, 마음 약한 사람들은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벤 야이르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부끄럽지도 않소?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이요. 우리가 여기 모여 로마군에 맞선 뒤로 그들은 죄없는 유대인들을 닥치는대로 죽였소. 다메섹에서는 일만 팔 천명이 처자식과 함께 목이 잘렸고, 애굽에서는 육만 명이 죽었소. 우리는 험준한 요새와 넉넉한 식량을 가**

지고도 이 싸움에 졌소. 지금 로마군은 우리를 살려 주겠다고 꼬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지 않소. 우리를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고, 우리 앞에서 성경을 찢으며 승리를 노래하고 싶어 하오. 우리는 용기로써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소. 아직도 우리 손은 자유롭고, 이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용기로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읍시다. 우리들의 비겁한 패배가 저들의 승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해서는 안되오.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죽음에 경탄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을 불질러 로마인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해야 하오. 그러나 식량 창고 한두 군데는 남겨 놓으시오.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져 죽었다고 보여서는 안되오."

남자들은 경건한 얼굴로 흠어져 갔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부드럽게 껴안고 아이들을 감싸고 눈물이 그득한 채 긴긴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 아이들을 그들의 손으로 죽였다. 남자들은 다시 한 곳에 모였다. 제비를 뽑아 열 사람을 가려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식구들의 주검 옆에 눕자, 열 사람은 다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골랐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나머지 아홉 사람을 죽였다. 그는 주검을 둘러보았다. 모두 숨이 끊어진 것을 보고 성안에 불을 놓았다. 그는 이윽고 자신의 몸에 깊숙이 칼을 찔렀다. 서기 73년 4월 15일 저녁, 죽은 사람은 모두 960명이었다.

다음날 아침 로마군은 단단히 무장을 갖추고 성벽에 나무다리를 걸쳐 놓았다. 그러나 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성은 무서운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타다 남은 불길과 즐비한 주검들이 그들을 맞았다. 로마군은 너무나 뜻밖의 일에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비록 적군이지만 그 결단과 용기로 이루어진 죽음 앞에서 기뻐 할 수는 없었다. 로마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자 두 여자가 숨어 있던 도랑에서 나왔다. 그녀들이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자, 실바는 두 여자와 다섯 아이들을 모두 살려 주었다.

●고고학자 야딘

로마군은 마사다에 40년쯤 머물렀다. 500여 년 뒤 비잔틴 수도사들이 한동안 살았지만 페르샤 이슬람교도들이 유대를 정복하자 그들도 떠나갔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세우기까지 1,900년이나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이, 그들의 용기와 신앙을 나타내는 마사다는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요세프스가 쓴 마사다 이야기는 어떤 역사 기록에도 없었으므로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때 마사다에 있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유대를 버리고 로마에 붙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요세프스의 기록이 진실임이 밝혀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1838년 사해 바닷가를 여행하던 두 미국인 학자 로빈슨 (Robinson)과 스미스(Smith)가 우연히 이 장엄한 바위산 위의 폐허 흔적을 보고 망원경으로 살폈다. 그 뒤로 1963년 이스라엘 정부가 발굴하기까지 125년간, 많은 탐험가들이 마사다를 찾아 그 비밀을 한 꺼풀씩 벗겨 내었다. 아랍 사람들이 아스사바 (As-Sabba : 저주 받은 땅)

라고 부르던 기묘한 바위산은, 많은 탐험가들의 손으로, 요세프스가 남긴 역사 기록 속의 마사다로 바뀌어갔다. 1963년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 고고학자 야딘 (Yadin)에게 요세프스의 기록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발굴을 부탁했다.

1917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야딘은 이스라엘 독립 운동에 참여하여 나중에는 참모총장까지 올랐다. 1952년 군을 떠난 야딘은 히브리 대학 고고학 교수로 일하면서 1955년부터 유대광야와 사해 근처의 여러 유적을 발굴해왔다. 야딘은 1963년 10월부터 1964년 5월, 1964년 11월부터 1965년 4월 까지 마사다를 발굴했다. 그리고 요세프스의 기록에 거의 틀림이 없음을 살살이 밝혀냈다.



야딘은 먼저 짙막한 신문 광고를 내어 발굴을 도울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워낙 외진데다 참기 어려운 날씨가 계속되는 고이었으므로,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왕복 여비를 자기가 내고, 두 주일간 한 천막에서 열 사람이 지내며 음식도 좋지 않다는 조건이었지만, 세계 스물 여덟 나라에서 신청서가 쏟아져 들어왔다. 지원자 5 천여 명은 한번에 두주일 씩 스물 세번에 걸쳐 번갈아 일했으며, 가드나 (Gadna : 청소년 전투 부대) 학생들과 집단 농장에서 온 지원자까지 합쳐 날마다 평균 300명이 발굴을 도왔다.

야딘은 그 옛날 로마 제 10군단장 실바의 캠프와 맞닿은 곳에 발굴 본부를 차렸는데, 내내 혹독한 날씨에 시달렸다. 아마도 세계 고고학 발굴 역사상 마사다 처럼 어려운 발굴은 없었으리라. 남풍은 시속 100 Km 로 불어 천막을 갈기갈기 찢었고,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같은 소나기는 눈 깜짝 할 사이에 골짜기를 채우고 말라붙은 개울을 강으로 바꾸었다. 캠프와 캠프 사이를 흙탕물이 넘쳐 흐르고, 보급 물자를 헬리콥터가 날라다 준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야딘은, 헤롯왕이 만든 거대한 물탱크에 물이 찰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며, 바위산 꼭대기 웅덩이들에 고이는 빗물을 옛사람들이 저장해 두었다가 잘 썼으리라고 알 수 있었다.

●영웅들의 성지 (聖地)

야딘은 맨 먼저 마사다 북쪽 고트머리 벵랑에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을 파냈다. 그것은 요새가 아니라 화려한 벽화와 로마식 목욕탕이 딸린 헤롯의 왕궁이었다. 대왕은 이 벵랑 꼭대기에서도 찬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을 마음대로 쓰며 사치스런 생활을 했다. 야딘은 여기서 처음으로 시체 셋을 찾아 냈다. 해골 하나는 젊은이의 것으로, 그 옆에는 갑옷에 달았던 은비늘 수백 개와 화살들이 흩어져 있었다. 다른 해골은 젊은 여자의 것으로, 까만 머리카락이 금방 손질한 듯 말려진 채로 남아 있었고, 또 하나의 해골은 어린아이의 뼈였다.



이 세 궁전을 발굴하느라 자원자들은 땀줄로 몸을 묶고 까마득한 낭떠러지에 매달려 거센 바람에 흔들리며 일해야 했다. 헤롯이 것처럼 위험한 곳에 궁전을 지은 까닭은, 경치 좋고 험한 요새인 정도 있었겠지만, 햇빛 드는 시간이 짧아 서늘하고 바람막이가 잘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3층왕궁 옆에는 커다란 창고가 있었다. 무너진 이 건물을 되살리기 위해서 발굴팀은 트랙터와 기중기를 써야만 했다. 이스라엘 육군 공병대가 기중기와 트랙터를 뜯어서 올린 뒤 다시 짜맞춰 주었다. 창고에는 기름, 술, 밀가루 단지 깨어진 것들이 그득 쌓여 있었다. 또 식량이나 일거리를 나눌 때 쓰였던 토큰들도 있었다. 한두 군데는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일부러 남겨둔 창고였다.

창고 뒤로는 아파트와 비잔틴 수도사들이 지은 회당이 있고, 헤롯의 별장인 서궁과 커다란 수영장도 있었다. 왕은 마사다를 빙둘러 흰돌로 성벽을 쌓고 군데군데에 탑 38개를 세웠다. 탑안과 성벽에 붙여 지은 방은 모두 110 개. 유대인들은 이 방들을 칸막이로 막아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다. 그밖에도 작은 궁 셋이 더 있었고, 특이한 것으로는 미크베 (Mikve) 라 불리우는 유대교의 침례의식 목욕탕이 있었다.

발굴팀은 갖가지 향아리와 생활도구들, 그리고 '유대인의 자유'라고 씌어진 진귀한 동전, 온 세계를 통틀어 여섯 개뿐인 은화 세 개, 가장 오래된 천 조각 따위를 찾아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소득은, 서기 73년 이전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구약성서 14개였다. 그것들은 시편, 레위기, 에스겔서, 신명기 부분들과 유대민족이 해방된 기쁨을 적은 희년서와 외경인 '벤 시라의 지혜서', 그리고 사해 동굴에서 나온 에세네파의 두루마리 성경들이었다.

열한달 동안 야딘은 유대 반란군들이 쓴 검소하고 한 맺힌 유물들과, 헤롯 왕이 세운 사치하고 화려한 유적들이 나타내는 뚜렷한 차이를 지켜보아야 했다. 고고학상으로는 헤롯의 유물이 더 값졌지만, 정신의 고귀함은 유대 반

란군의 유물에서만 볼 수 있었다. 마사다를 '영웅들의 성지'로 만든 것은 바로 이 고귀한 정신이다. 이 정신은 오늘날까지 승화되어 마사다는 현재 이스라엘 군 장병들의 선서 식장으로 활용되고, 이곳에서 그들은 "Never Again!"을 외치면서 1948년에 독립한 조국이 다시는 외적에 의해 정복당할 수 없다는 비장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예화

어느 장로님 가정에 딸을 다섯이나 낳고 여섯 번 째 외아들을 낳았다.
너무 기뻐 이 가정에 대 경사가 되었다. 이 외아들은 귀엽게 자랐다.
그러나 그는 부모와 누님의 사랑 속에 버릇없이 빳나간 생활을 하였다.
온 마을의 골칫거리 아들이 되고 말았다. 이 외아들은 동네 마을에 못된 일을 저질러
온갖 손해를 입히고 아버지 장로님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교회도 욕을 먹게 하였다.
손해를 입히면 부모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손해 배상을 해주고 갇은 옥설과 창피와 모
욕을 당하였다. 어느 날 못된 아들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 상태로 집에 들어 왔을 때 부모님들은 방에
엎드려 눈물로 뺨을 적시며 기도하느라고 눈이 툭 툭 부어 있었다.
이때 아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발길로 차고 행패를 부렸다.
그러나 눈이 시뻘겋게 부어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자 목석같은 아들이 숙연해지며 말을 못하고 주
저앉았다. 날이 새자 술에서 깬 아들은 부모님 앞에 가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빌
었다. 부모님들은 "오냐, 그래야지" 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며칠후, 아들은 마루의 대들보에 무수한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 대들보에 왜 많은 못을 박으셨어요?"
"그 못은 네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하나씩 박은 것이란다."
한참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린 아들은
"아버지,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저 못을 하나씩 뽑겠어요." 하고 말했
다.
그 후에 이 아들은 선행을 열심히 하여 못을 다 뽑자
"아버지, 이제 못을 다 뽑았어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소리쳤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들보의 못 자국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못은 다 뽑았지만 못 자국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너는 저 못 자
국을 보고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 손가락들의 비애 >

첫번째 손가락이 말했다, "내가 제일 두꺼우니까 내가 왕이야"
그러자 두번째 손가락이 말했다, "내가 누구를 지적하면 다들 일어나야 하니깐... 내가 왕이야!!"
그러자 세번째 손가락이 말했다, "내가 제일 키가 크니깐.. 내가 왕이야"
그러자 네번째 손가락이 말했다, "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부자야
내가 왕!!"
그러자.... 마지막 새끼 손가락이 말했다, "너네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 사랑하는 화평반 친구들에게

너희들을 만나 온 지난날들이 생각나는구나. 어떤 친구들이 올 해에는 선생님 반 아이들이 될까! 선생님은 무척이나 궁금했었던단다.

선생님과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도 같이 나누며 올 친구들이 바로 너희들이었어.

선생님이 너희들을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1학년였을거야. 너무도 개구쟁이였고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었던단다. 기억은 나니?

1학년 때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다시 만난 너희들의 모습에서는 너무나 변한 것을 볼 수 있었지. 무엇보다도 키가 자랐고 믿음도 쑥쑥 자란 것 같아.

화평반 친구들아! 선생님 마음은 어떠했는지 아니?

너희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함을 늘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기 원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제일 으뜸반이 되길 원했지. 이것이 선생님 혼자 갖는 욕심일까?

나는 너희들을 믿는단다.

때로는 선생님을 속상하게 하고 다른 선생님들께 꾸지람을 듣는 친구들일지라도 선생님은 너희들이 자랑스럽단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써 잘 자라주고 있기 때문이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늘 이렇게 우리 화평반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 화평반 친구들 모두가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를 갖게 해 주시고,

다윗 왕과 같은 용감함을 주시며,

꿈을 갖는 아이.

그 꿈을 이루어 가는 아이.

먼 훗날에 요셉처럼 부모 형제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우리 화평 반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

선생님이 이제 남은 기간동안 그 친구들을 잘 이끌어야 할텐데....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할 테니 너희들도 선생님과 한 마음이 되어 멋진 반을 만들어 보자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미약하고 말쑥꾸러기 반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목사님, 전도사님께 칭찬듣는 우리 화평반이 되자구나.

선생님은 너희들 김정석, 강지훈, 김찬서, 김택구, 조용범, 윤정욱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잘 가르치며 이끌어 줄 거란다.

애들아!

선생님이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들도 선생님을 사랑하겠지?

애들아, 사랑한다.

안녕~~

화평반 친구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선생님이

『응급구조활동』

위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및 구조활동은 부상자나 환자에게 필요한 일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일을 예를 들면, 나중에 할 일 또는 전문 응급의료서비스 요원이 할 일 등을 하여 일의 적당한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위급상황의 현장에서는 다음 3단계의 응급구조활동의 원칙을 꼭 기억하고 지켜 처치원과 부상자·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상자·환자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처치해야 한다.

1. 현장조사 (check)
2.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에 연락 (Call)
3. 처치 및 도움 (Care)

응급구조활동은 항상 위의 순서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3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현장조사

가. 현장은 안전한가?

처치원이 부상자·환자에게 접근하기에 안전한지 부상자·환자에게 더 이상의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를 판단한다.

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주위의 상황 또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한다.

다. 몇 명이나 다쳤는가?

첫 눈에 보게 된 부상자·환자 외에도 다른 부상자 환자가 있을 수 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그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현장의 상황 파악과 부상자·환자에 대한 정보 및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에 도움요청 전화 등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친다. 자신이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음과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2.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에 연락

현장조사에서 알게 된 부상자·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서비스 기관(EMS :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에 알려 전문적 구조를 요청하는 단계이다.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처치원 자신이 해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누군가에게 연락을 부탁하고 처치원은 현장의 부상자·환자를 계속 지켜보며 돌보도록 한다.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에 전화를 걸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가. 보다 확실한 도움요청이 되도록 가능하면 2명 이상이 전화하도록 한다.

나.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이 전화번호(1339, 119 등)를 알려 준다.

다.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에 알려 줄 사항을 정확하게 말해 준다.

- 응급상황 발생 장소 : 정확한 주소, 시나 마을의 이름, 교차로명, 건물명, 층, 방 번호 등
- 사건이 발생한 시간

- 전화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용하는 전화번호(연락가능한 번호)
- 응급상황의 내용 -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을 때
호흡이 곤란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호흡할 때
가슴 및 복부에 압박과 통증을 호소할 때
심한 출혈이 있을 때
혈액이 섞인 구토를 할 때
불분명한 말투, 발작 증세와 심한 두통증세를 보일 때
중독 증상이 보일 때
머리, 목 등에 상처가 있을 때
골절이라고 예상될 때

※ 다음과 같은 상황(사고현장)에도 연락

- 화재, 폭발을 목격할 때
- 끊어진 전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 급격히 물이 불어날 때
- 차량 충돌시
- 부상자가 쉽게 움직이지 못할 때
 - 부상자 · 환자의 수
 - 부상자 · 환자의 상태
 -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

라. 응급의료서비스기관의 파송요원이 전화를 끊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지 말라고 이른다. 응급의료 서비스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얻어 적절한 구조를 위한 요원과 장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 전화를 한 후 반드시 돌아와서 응급의료서비스기관과 통화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다.

3. 처치 및 도움

부상자 ·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급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가. 호흡계와 순환계 확인 : 기도(Airway), 호흡(Breathing), 순환(Circulation)을 살펴 본다.

나. 부상자 · 환자에게 물어본다. 말을 못할 경우에는 주위 사람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다. 생체 징후를 확인 : 호흡, 맥박, 체온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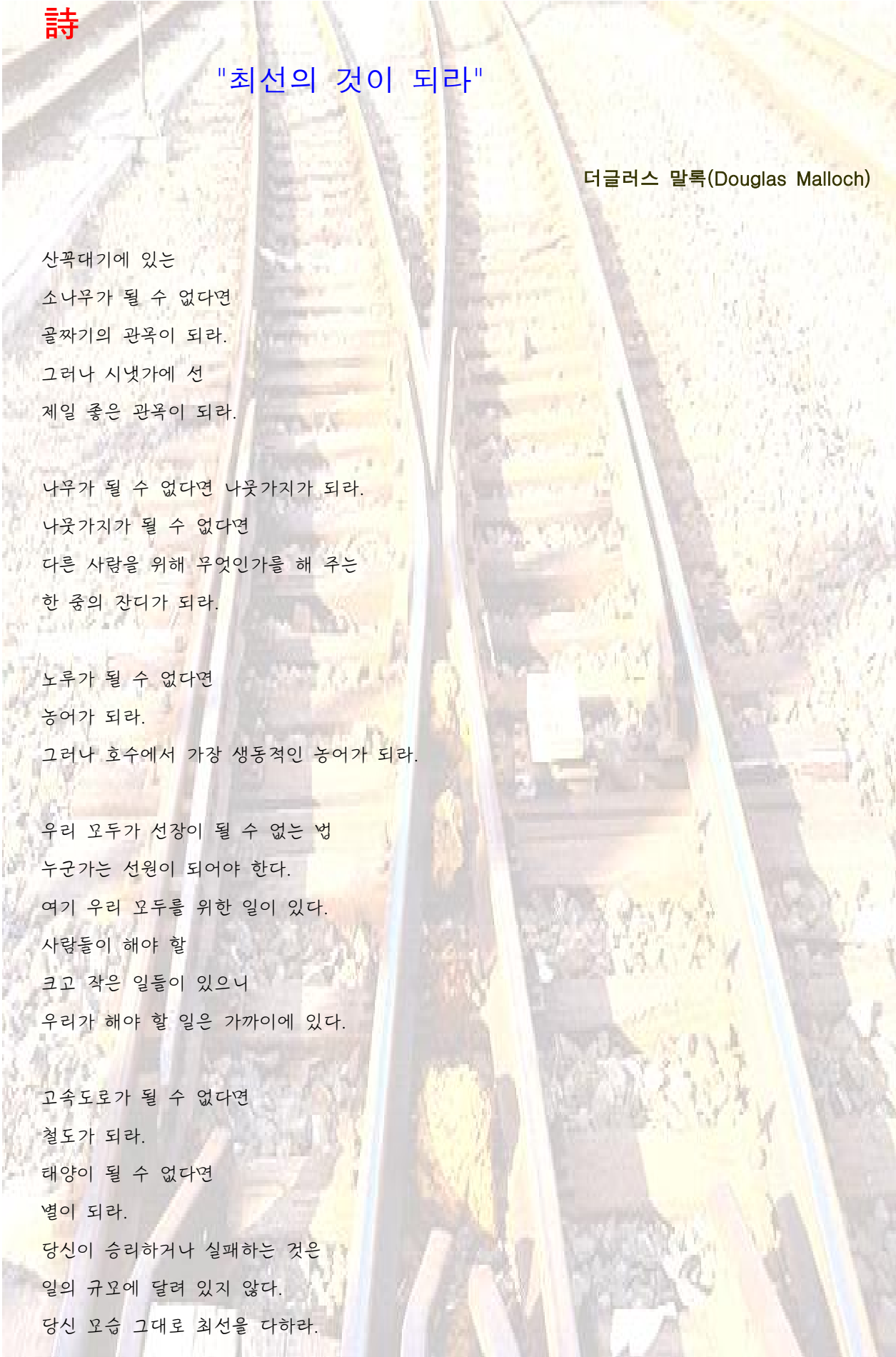
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른 부상 여부를 조사한다.

피부색, 동공반사, 의식유무 정도, 운동능력, 지각능력 등을 검사한다. 또한 환자의 수가 많이 발생하였을 때 위급한 환자부터 처치한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은 위에 설명한 응급구조 활동의 원칙을 각 단계별로 잘 지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응급처치 활동 시에 지켜야 할 일반적인 유의 사항이 있다.

옥에 티 - “옥에 티가 있다”는 말을 한자어로 ‘하옥(瑕玉)’이라고 한다.

“취굴을 무너뜨리면 마을의 운이 부서지고 여드름을 분지르면 보루지와 등창이 일어나는데, 이는 마치 진주에 흠이 있고 옥에 티가 있어서 이를 놔두면 곧 온전해지고 이를 제거하면 곧 이지러짐과 같다.”



詩

"최선의 것이 되라"

더글러스 말록(Douglas Malloch)

산꼭대기에 있는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관목이 되라.
그러나 시냇가에 선
제일 좋은 관목이 되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나뭇가지가 되라.
나뭇가지가 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는
한 줌의 잔디가 되라.

노루가 될 수 없다면
농어가 되라.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생동적인 농어가 되라.

우리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는 법
누군가는 선원이 되어야 한다.
여기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있다.
사람들이 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에 있다.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철도가 되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당신이 승리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일의 규모에 달려 있지 않다.
당신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라.

9월의 교회력

2	기관장회의	9		16	학생회헌신예배	23	성구함송대회	30	찬양예배
	민영익 공사, 미국에 한국선교 청원(1882)		조선기독교 여자절제회 창립(1923)		메이플라워호 출항(1620) 김대건 신부 순교(1846)				조지 핏필드 별세(1770) 제물포에 한국성공회 성당 최초로 헌당(1891)
3	성경통독대회	10		17		24			
	한국 최초선교사 토마스 목사 순교(1866) 한국기독교연합회(KN CC) 창립(1946)				장로교 독노회 조직하여 7인에게 최초로 목사 안수(1907)				
4		11	거리청소운동	18		25			
	추수감사절 제정(11월 셋째 주일후 수요일)(1915) 슈바이처 별세(1965)				신익주에서 기독교 사회민주당 조직(1945) 평양신학교 계승한 대구 총회신학교 창립(1951)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약(1555) 합동축과 고신측 합동(1960)		
5		12		19		26			
	토마스 아캄피스 별세(1471)		제16차 세계 오순절 대회 서울서 개최(1973)		허드슨 테일러, 영국에서 중국선교를 향해 출발(1853) 장재덕목사, 만주 길림성에 선교사로 파송(1920)				
6		13		20	영적성장세미나	27			
	장로교 혼인연령 제정(남:만17세, 여:만15세 이상)(1914)		주일학교 창시한 영국의 제이크스 목사 출생(1736) 토마스목사 기념예배당 대동강 언덕에 건립(1933)		선교사 알렌 한국에 입국(1884) 평양신학교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1938) 고려신학교 개교(1946)		로올라 예수회 조직(1540) 새문안교회 창립(1887) 방지일목사, 중국산동성 선교사로 파송(1937)		
7		14		21		28			
			대구 YMCA 발족(1918)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신사참배 반대운동 전개(1938) 손양원목사, 김예진목사, 김응낙장로 순교(1950)		
1		8		15		22		29	
	영국의 버질 홀 함장, 서해안 방문 한문성경 전달(1816) 장로교 총회조직(1912)		캐나다 장로교 한국선교 결의(1898)		한국 YMCA 여녀합회 결성(1923)		니케아 종교회의 종결(325)		한국에 영국성공회 선교부 설치(1890)

α. 가난한 미혼모, 12만弗 주워 주인에게

미 조지아주 서배너에 사는 완다 존슨(34)은 지난 5일 밀린 전기료 60달러를 내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당포로 차를 몰고 있었다. 다섯 자녀를 둔 미혼모인 그녀는 병원 청소부로는 도저히 생활을 꾸릴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TV를 잡힐 심산이었다. TV는 자신은 물론 아이들의 유일한 오락거리였다.

차를 운행하던중 앞에서 달리던 무장차에서 갑자기 플라스틱 가방이 떨어졌다. 함께 달리던 차량은 이를 보고 황급히 피했으나 존슨은 차를 세우고 가방을 주웠다. 가방에는 '예금' '12만 달러'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뒷좌석에 구겨넣고 일터로 돌아왔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들여다보니 가방에는 20달러, 10달러, 5달러 지폐 묶음이 가득했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그녀는 순간 이 가방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10여년간 다섯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신산스런 시간들이 머리에 스쳐갔다. 그러나 즉시 마음 한켠에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대답이 울려왔다.

고민 끝에 그녀는 옳은 일을 할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빌며 목사 사택으로 차를 몰았다. 자초지종을 들은 목사는 그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기도 후 그녀는 평온한 마음으로 경찰에 습득 신고를 했다.

돈을 잃고 전전긍긍하던 EM보안회사측은 환호했다. 현금지급기에 넣어 둔 요량으로 돈을 모두 자액권 현금으로 바꾸었기에 되찾을 길도 막막했기 때문이다.

EM보안회사의 현금 수송 책임자인 워런 스미스는 "그녀는 보통 사람들이 지니지 않은 용기를 지녔다"고 감탄했다. EM측은 그녀의 선행에 대해 적당히 사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의 용기있는 선행은 뒤늦게 미국 전역으로 알려져 주요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쇄도하는 인터뷰에서 그녀는 "내가 주운 것은 현금 가방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유혹이었을 뿐"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β. 헌혈 참여자 기독교인 '최다'



기독교인이 종교인들 가운데 헌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해 헌혈자 중 교회나 성당 등 종교기관을 통해 헌혈한 4만6018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3만8344명으로 다른 종교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주교인은 5,648명 불교도는 848명에 그쳤으며 기타종교인은 1,378명이었다.

기독교인 헌혈자수를 타 종교인과 비교해보면 천주교인의 6.7배, 불교도의 59.2배에 달하고 다른 모든 종교인의 수를 합친 것보다 5배나 더 많았다. 이는 기독교의 경우 본보가 사랑실천운동본부와 함께 펼치고 있는 헌혈 캠페인 등 주일 교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헌혈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수는 지난 97년 1,017개 교회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는 869개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기독교인 헌혈자수도 97년에는 5만6665명을 기록했던 것이 98년 5만2022명, 99년 4만143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위원회(상임위원장 이승영 목사)는 "아직도 의약품 개발과 연구를 위해 해마다 50만 명분의 혈액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교회가 특별한 절기나 교회창립 기념주일을 헌혈의 날로 정해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존화장품 김광석 회장, 죽음의 문턱서 난생 처음 '하나님'

신앙인의 변신은 무죄다. 타종교에서 180도 삶을 전환시킨 그를 보면, 죽음의 문턱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사업가로 다시 태어난 그를 보면 절로 그런 생각이 든다.

화장품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던 참존화장품 김광석회장(51·소망교회). 그는 매일 아침 새벽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기도의 내용은 한결같다. “오늘 하루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교만은 그 모양이라도 생각하게 마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젊은 날의 김회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가 신앙인으로 돌아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운명이었다. 성대 약학과를 졸업한 그는 종로 피보약국을 경영하면서 장안의 유명인이 됐다. 피부를 보호한다는 뜻의 피보약국은 예뻐지기 원하는 여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날로 번창했다. 약을 팔아 번 돈으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도봉산 기슭에 절을 짓는 것이었다. 1천여 명의 신도가 모여들었고 신도회 회장을 맡았다. 어머니는 승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온 집안은 철저히 타종교에 심취해 있었다. 만약 그 사건만 없었다면 김회장은 아마 모든 돈을 털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절을 지었을 것이다.

피보약국이 유명해지면서 전국 약사들이 그를 방문했다. 직접 조제해 팔고 있는 약을 나눠달라는 것이었다. 그 역시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괜찮겠다 싶어 전국 60군데에 약을 조달했다. 그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무허가 제약으로 보건범죄단속법에 걸린 것이다. 모르고 한 일이지만 법이 허락할 리가 없었다.

79년 ‘잘나가던 약사’에서 ‘도망자’로 변신한 그는 전국 절을 찾아다니며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6개월을 피하다니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양산 통도사의 켜켜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텅빈 방안에 빛바랜 신문 한장만이 그를 반겼다. 다름 아닌 6개월 전 자신의 기사가 실린 신문이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다. 갑자기 울분이 솟구쳤다.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고 한심했다. 신문을 움켜쥔 채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뿜어내는 듯했다. 갑자기 입술이 열리며 하나의 단어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러보는 ‘하나님’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웠어요. 왜 하필 그곳을 찾았고 그 방에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이 있었을까요. 그날 저는 눈물 끝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도 끝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운을 안게 됐습니다”

절을 내려와 자수를 한 후 그의 삶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매일 성경공부를 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기초전문화장품회사인 ‘참존’이었다. 기도 중에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된 사업은 이색적인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화장품 업계에 김회장의 신화가 생긴 것이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일조의 역사죠”

사업가가 십일조를 한다고 하면 모두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먼저 했다. 그러나 십일조는 그에게 놀라운 간증이 됐다. 정확한 십일조 후에는 신기하게도 매년 두 배의 경제적 축복이 쏟아졌다. 김회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십일조 축복론’을 강의한다.

요즘은 주일마다 십일조를 내는 그는 새해 첫날이면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버는 만큼 베풀고 살자는 것은 신앙을 가지면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이면 그의 비서실은 단체, 개척교회 등 20여 군데가 넘는 곳에 후원금을 보내는 일로 분주하다. 이일은 벌써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축복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시면 하늘나라에 저금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기업가로도 최선을 다하는 그는 2000년 3월 24일 전경련에서 주는 글로벌 경영인상을 수상했다. 정직하고 청렴한 경영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는 김회장은 1년2개월째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며 신앙을 키워가고 있다.

◎ 9월

- * 신앙서적 /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비결 『김석년 저』
- * 성경쓰기 / 일시 : 9월 1~30일 범위 : 미가~말라기
- * 구약성경 새벽통독대회 / 일시 : 9월 3일~10월 13일 범위 : 역대상~말라기
- * 성구암송대회 / 일시 : 9월 23일 범위 : 마 5:1~12, 1~15
참가유형 : 개인, 가족, 구역
- * 학생회 헌신예배 / 일시 : 9월 16일 오후 8시
- * 영적성장세미나 / 일시 : 9월 20일 오전 11
주제 : 현대사회의 전도 노하우
- * 찬양예배 / 일시 : 9월 30일 오후 8시
주제 : 얼굴을 주께 들라
- * 지역 거리청소 / 일시 : 9월 11일 오전 10:30 장소 : 백암리 채운리 일대
정기 : 매월 첫째주 화요일

시사상식

국제사면위원회

1961년 England의 lawyer Beneson의 제의에 의해 조직된 International human right group (국제적 인권단체). London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인권선언)을 바탕으로 politics(정치)·religion(종교)·ideology(사상)의 견해로 arrest(체포)되거나 투옥된 political prisoners(정치범)의 석방, fair trials (공정한 재판)와 political prisoners의 처우개선, cruel treatment of prisoners(수용자에 대한 가혹 행위)의 abolishment(폐지)를 해당국가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에 관계없이 각국 정부에 letter(서신) 등으로 요구하는 movement를 전개, 이 공로로 1977년도 the Nobel Prize for peace(노벨 평화상)를 수상한바 있다. 1998년에는 genocide(민족말살) 범죄자의 trial(재판)을 요구하는 movement(운동)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1999년 4월에는 President Kim에게 한국의 empower human rights commission(인권위원회의 권한강화)을 요청하는 letter를 보내기도 했다.

지리정보시스템

지리공간 data를 collecting(수집)·storing(저장)·analyzing(분석)·processing(가공)해 지형 관련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리정보 시스템. 국토계획에서부터 도시계획, 수자원, road system(도로), land(토지), 환경생태, 지리정보, 지하 매설물 등 국가가 소유한 모든 자원 및 공간정보를 computer로 manage(관리)한다. GIS를 활용하면 administration(행정) 및 national strategy planning(국가전략기획)과 사회 각 분야의 census(통계조사)를 effectively(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national security(국가안보)의 management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America의 EROS(지구자원관측위성; Earth Resources Observation Satellite)계획을 들 수 있다. 이것은 artificial satellite(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우주공간으로부터 the earth(지구)의 surface(표면)를 repeated observation(반복적 관측)을 통해 the earth의 environmental condition(환경실태)과 그 change에 관한 information을 획득하는 것을 aim(목적)으로 한다. 현재 이를 위한 practical satellite(실용위성)로 LANDSAT가 쏘아 올려져 있다.

목사

1. 기업예배 / 주복카(8월 2일)
2. 수련회 세미나강의 / (8월 8일)
주제 : 천국과 그리스도인의 가정
3. 침례예식 집례 / (8월 7일)
4. 성찬예식 집례 / (8월 12일)
5. 성경공부 강의안 집필
6.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
7. 출산 성도 병원심방 / 금일봉 전달

교인

1. 등록 / 최수미 청년
송산면 명산리(전도:김진숙선생)
박엘리자 성도
당진읍 행정리(전도:본인)
2. 출산 / 이영주사모(8월 10일) 득남
이영주성도(8월 27일) 득녀
3. 이사 / 최은주집사(당진읍 북문리)
4. E-Mail / 구옥순성도 :
gosgtop@hanmail.net

교회

1. 아기수련회 / 8월 6~9일
푸른초장교회와 연합
2. 침례예식 / 8월 7일
태안, 구레포
3. 헌신예배 /
청년밀알선교회헌신예배(8월 19일)
4. 영화상영 / 주일학교,
The King(다윗과 골리앗)
8월 30일 오후 7:30
5. 구약성경 새벽통독대회 /
9월 3일~10월 13일
6. 교회용 인터넷 카페 개설 / 복된발
<http://cafe.daum.net/djfgcc>

	대상	요일	모임	시간	비고
예배	장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예정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	저녁 예배	오후 7:00(11월~3월) 오후 8:00(4월~10월)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오전 11시	
	주교	주일	구역 예배	각 가정에서	
			오전 예배	오전 9시	
	학생		오후 예배	오후 3시	
		토요	성경공부	오후 5시	문화활동 있음
		주일	정기 예배	오후 5시	
기도	청년	토요	정기 예배	오후 7시	
		금요	철야기도회	밤 9시	
교육	장년	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주일	초신자양육	오후 1시	2회(사무실)
		주일	새신자훈련	오후 1시	1회(사무실)
		화요	평신도훈련	오후 8시	조직신학
		목요	평신도훈련	오전 11시	
		화요	구역장공과	오전 6시	
		화요	제자훈련(초급)	오후 9시	
		목요	제자훈련(중급)	오전 9:30	
			제자훈련(고급)	오전 11시	
		주중	일대일양육	정한시간	가정, 직장
모임	성가	목요	영적성장세미나	오전 11시	격월
		수요	교사대학	저녁예배후	현직 교사
활동	성가	주일	연습	오전 10시	오후 12:30
		토요	연습	오후 5시, 8시	
	울동선교단	수요	1기(레마)	오전 10시	연습
			2기(살롬)	오후 1시	
		토요	3기(셀라)	오후 5시	
	찬양선교단		연습	매주 화, 목	오후 7시
	컴퓨터	월요	컴퓨터교육 및 작업	오후 5시	컴퓨터팀
		화~토	컴퓨터교육	오전 10시~오후 9시	PC방 운영 교육생
	기도팀	월~토	1시팀	오후 1시	개인기도 중보기도 교회기도
			3시팀	오후 3시	
			9시팀	오후 9시	
문서	문서	월요	문서발간위원회	오전 11시	순복음Life지
		월요	행정팀	오전 10시	주보, 엽서 등

◆ 「순복음 Life」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동과 사명으로 참여해 주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표지 1면을 참고 은행계좌번호 481076-56-044087(농협) 예금주-김미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네리아의 아들이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성전에서 낭독했던 자는? (렘 36:4, 8)
2. 그리스도와 000이 어찌 조화되며(고후 6:15)
4. 부디엘의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으며 후에 아론의 후계자가 된 사람은? (민 20:26)
7. 하나님께 드림(막 7:11)
8. 솔로몬 성전의 현관 좌편에 세워졌던 기둥의 이름? (왕상 7:21)
10. 누룩이나 다른 효모를 넣지 않고 구운 빵으로써 유월절을 기념하여 먹는 빵은? (출 12:8)
11. 세례 요한이 관아에서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00이다. (마 3:4)
13. 애굽 왕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는? (출 6:11)
14. 일부러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를 무엇이라 일컫는가? (민 35:16~18)
15. 고난당한 자의 기록이 있는 책은?

<세로 열쇠>

- 1) 아셀 지파이며 여선지자 안나의 아버지는? (눅 2:36)
- 2) 연회 도중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보았던 왕은? (단 5장)
- 3)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묘사하는 말은? (출 1:20)
- 5)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00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
- 6) 나훔 선지자의 고향은? (나 1:1)
- 9) 실히의 딸이며 여호사밧 왕의 어머니는? (대하 20:31)
- 10)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
- 12) 감독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어야 하는가? (딤후 1:7)

♣ 누구든지 정답을 작성하여 9월 23일까지 제출하면 추첨하여 시상함.

- ♣ 1. 전자우편 : hagape@netsgo.com (교회), kmjagape@borahome.net (위원장)
2. 일반우편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우) 343-800 순복음중앙교회 문서발간위원회 앞

📧 제8호 당첨자 시상 - 1등 : 송미정 2등 : 장명희 3등 : 김정화
허선영 고승희 강지혜 현덕규 강난순 최순환 김보경 원재옥

▶ 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 문서발간위원회 ▲

위원장 : 김미진 집사
서 기 : 이종희 성도
회 계 : 구옥순 성도
위 원 : 박순남 집사
손현숙 권찰
윤희자 전도사
이영주 성도
편 집 : 한승권 목사
도우미 : 김진숙 선생

